

한국문화교류 소식

24호 2017년 6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문학관, 왜 필요한가



이 현 식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관장

종이책을 읽는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독서율은 65.3%로 2013년 조사 때의 71.4%에 비해 6.1%가 줄었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문학 독서 인구 역시 점차 줄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베스트셀러 목록

에서 한국문학의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다.

지금은 읽고 보고 즐길 것이 넘치는 세상이다. 움직이는 소형 컴퓨터이자 다채널 통신수단인 스마트폰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채팅을 즐기고 게임을 하며 동영상 감상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즉흥적인 재미를 충족시킬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진지한 문학 작품을, 그것도 종이책으로 읽는 것은 이제 예외적인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책 읽기를 권장하는 건 알콜 중독자에게 말로만 술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는 일, 즉흥적 재미가 아니라 내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감동을 느끼는 일은 인간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것은 화학조미료 투성이의 인스턴트식품이 주는 얇은 맛이 아니라 된장 같은 오래된 숙성 식품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향과 건강을 포기할 수 없는



인천 한국근대문학관 전경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문학작품을 읽는 일은 마음의 건강,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운동을 하듯이 매일 책을 읽는 일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문학작품은 다른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나 스스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나가도록 만든다.

그렇지만 그런 문학의 맛과 깊이를 우리는 어떻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중, 고교 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학 작품만으로 그것을 느끼기에는 태부족이다. 더구나 모든 것이 입시로 연결되는 우리 교육 제도 아래에서 문학은 향유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외워야 할 지식의 목록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문학의 맛과 깊이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문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높이 쌓아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학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문학관은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문학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중, 고교 시절 지루하고 어려웠던 문학작품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바로 우리 삶과 인생의 실체에 대해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로서 문학의 역할을 온전히 되살리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국적으로 70여개가 훨씬 넘는 문학관이 있지만 운영은 부실하고 프로그램은 빈약하다. 그게 문학관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문학관을 짓는 데에만 공을 들였지 정작 운영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탓이 크다. 문학관은 짓는 것보다 운영이 몇 배가 더 중요하다. 모든 문화 시설은 시설 자체보다 운영이 훨씬 중요하다. 시설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기는 음식이 바로 운영과 프로그램이다. 그

릇이 아무리 사치스럽고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맛이라면 누가 그 음식을 먹으려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문학관은 내실있는 운영이 성패를 좌우한다. 문학관만이 아니다. 박물관도 미술관도 공연장도 운영과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문화적인 선진국에서는 문학을 자신들 공동체의 자산이자 자부심, 문화적 향유의 실체로 여겨 문학관을 곳곳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유명 작가의 생가,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문학관을 만나게 된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도시의 곳곳에 문학관, 문학 골목, 문학 공원이 있다. 시민들의 일상에 문학이 그만큼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서양의 여러 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문학을 향유하고 즐기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의 문학이 일상적 교양이 되는 나라가 문화적인 선진국이고 진실로 인간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문학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일은 작년 문학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학관의 사회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문학관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문학의 내일도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언어는 정신입니다. 언어는 뿌리입니다. 언어는 미래입니다



김 영 미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주말한글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너무 작아요. 다시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바 손을 배꼽에 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밀라나도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알리샤도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여느 학교 아이들과 다른 수업 방법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고려인 6~7세 어린아들이다. 매주 토

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는 나의 수업은 12시 수업을 마치는 시간이 되면 목이 쉬어 있다. 정말 녹초가 되어 축 처진 파김치가 되어있다. 그러나 오후에 현지학교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주말한글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 다시 현지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보면 피곤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더 자고 싶은 아이들을 깨워서 이른 시간에 한글학교로 보내시는 부모님의 정성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을 받는다.

우리 학교는 여느 한글학교와는 또 다른 한글학교이다. 우리 학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인 후손들을 위해 세워진 ‘고려주말한글학교’이다. 학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학교는 고려인 4~6세 후손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우리 아이들은 조선 말 일제의 핍박과 가난을 피해 러시아의 연해주에 정착했던 선조들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척박한 이 땅에, 아무런 연고 없는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했던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슬프고 아픈 역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국어는 러시아어이고 한국어는 제2의 언어가 되는 것이며 민족계승어가 되는 것이다.

처음 고려주말 한글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서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기본적인 러시아어 정도는 하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너

무나도 확실히 들려지는 외국인의 발음에 아이들은 처음엔 나의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바디랭귀지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꼈다. 처음 우리 학교에서 만난 항일 의병장 민공호 선생님의 증손녀 '민아냐'를 만났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냐의 큰 눈매는 민공호 선생님의 눈매를 꼭 닮았다. 아냐의 얼굴에 민공호 선생님의 모습이 있음을 보았다. 그런 아냐를 보면서 나는 순간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 많이 사랑해주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가르침으로 빛을 감자라며 속으로 되새기며 아냐를 꼭 안아 주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학교는 단순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민족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같은 조상을 가진 민족으로서 문화를

가르친다. 설날 행사에 세배를 가르치고 세배 돈을 주고, 윷놀이를 하며, 복주머니를 만들고 우리 고유의 설 문화를 가르치며,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석 문화 행사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 학교는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주체로 진행되는 3·1절 행사와 11월에 순국선열의 날 행사에 '아리랑', '홀로 아리랑', '참 좋은 말', '아빠 힘내세요' 등의 합창으로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당당히 참가하며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을 배우며 이어가고 있다. 또 올 5월 20일 '한민족 축제'에 참가하여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하여 축제에 참가한 대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 지난 3년간 여름 방학을 이용해 매년 10여명 학생들이 충북 영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초청이 되어 모국방문 행사로 한국 학교교육체험과 함께 유적지 방문 등의 현장학습으로 한국어의 학습효과 향상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중요하고 훌륭한 주역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정신이고, 뿌리이며,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고려주말한글학교는 한국어를 통하여 민족의 정신, 민족의 뿌리,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한글학교 수업 모습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조선 초상화’와 ‘현대 시(詩)’에서 보는 배려와 행복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6주년 기념 포럼 개최

ICKC는 지난 3월 30일(목), 2017년 정기 총회 및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건강한 배려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널리 환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참석 못 한 회원들께도 포럼의 취지 및 요지를 전하기 위해, 당시 강연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전재(全載)한다. 게재를 허락한 재외동포 신문사 이형모 대표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동승동) 역사관 세미나실에서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을 주제로 한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을 가졌다.

포럼에는 조남철 이사장,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박의근 (주)P&H 회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회장,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안종배 한세대학교 교수 등을 포함해 7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총회와 2부 기념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최영욱 사무국장이 1부 사회를 맡았다. 1부 총회에서는 조남철 이사장의 개회사 및 조정원 총재의 환영사와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사업 보고에 이어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2016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가 있었다.



개회사 중인
조남철 ICKC 이사장



'2017년 ICKC 재외동포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수상자 및 시상자 기념 촬영

이어서 특별 순서로 '2017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재외동포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는 본 장학 사업이 국내 유학 중인 우수한 재외 동포 학생의 학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2017년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로, 올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천과 심사를 거쳐 국내 유학 중인 고려인 유학생 2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수상자인 강 엘리세이(투르크메니스탄, 연세대 재학)와 김 나탈리아(우즈베키스탄, 인천대 재학)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의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부 포럼에서는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의학박사, 미술사학박사)과 유자효(前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시인의 강연이 펼쳐졌다.



기조 강연 중인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먼저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아서 - 조선 초상화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이 기조 강연을 시작했다.

이성낙 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문화에 대해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등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서 현재 우리가 '문화적

환경'에 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분열과 반목, 흑인 비하 등이 거듭되는 등 다른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문화 특히 조선 초상화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 총장은 주장했다. 최근 조선 초상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총장은 한·중·일 3국의 초상화를 비교해 설명했다.

조선의 초상화는 인물의 병(病)이나 장애, 결점 등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점에서 세계미술사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가치를 지녔다고 강조했다. 중국이나 일본의 초상화가 인물들을 지나치게 꾸미거나 과장해서 사실과 다른 '초상화'를 그리는 전통과는 사뭇 다른 전통을 지켜온 '조선초상화'인 것이다.

이 총장은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자산에 긍지를 지녀야 하며, 우리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던 조선의 시대정신을 본받아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치료할 방안을 찾기 를 촉구하며 강연을 마쳤다.



유자효 시인의 강연 모습

다음으로 유자효 시인이 <시(詩)에 나타난 배려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이어 갔다.

유자효 시인은 현재 한국 사회가 끝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유 시인은 세계적 자원봉사 단체인 '로타리 클럽'의 공식 표어 'Service above Self'를 언급하며 이와 같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예수의 희생 이야말로 배려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리 일반 대중은 시(詩)를 읽고 음미하면서 이러한 배려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유 시인은 강연의 취지를 밝혔다.

한 줄로 된 조병화의 <천적>부터 정현종의 <섬>,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에 이어 열 줄로 된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까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열 편의 시를 함께 낭독하고 그 뜻을 밝히는 흥미로운 방식의 강연을 통해, 유 시인은 이러한 시들에 나타난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이 바로 배려의 다른 이름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을 경청 중인 참석자들

발표를 마친 후에는 김태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두 분 발표자의 발표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 구동성으로 사회 전반에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문화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 포럼 참석자 기념사진



한국어

아르헨 국제도서전서 ‘한글’ 콘텐츠 인기… “새 한류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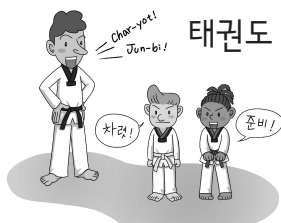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 루탈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도서전에서 ‘한글’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5월 11일 현지 한국문화원이 전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도서전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과 함께 중남미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도서전이다.

한국문화원은 이곳에서 ‘책을 펼쳐나온 문자, 한글’이라는 주제의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뛰어난 조형미와 기발한 창의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한글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립한글박물관의 협력을 받아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아르헨티나 참가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창제 역사와 시대별 한글 글꼴의 변천 과정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장진상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국제도서전은 다양한 계층의 현지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 홍보 플랫폼이었다”며 “앞으로는 한글이 새한류를 개척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 장면

출처_ 연합뉴스, 2017. 05. 11.



태권도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 첫 대회 성료…

한국 금 2개 추가

한국이 ‘더 재미있는 태권도’라는 기치 아래 첫 선을 보인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한국은 5월 6일(이하 현지시간) 그리스 로도스 섬 해변에서 막을 내린 제1회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보냈다. 한국은 대회 첫날인 5일에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는 태권도의 영역을 드넓은 해변으로 확대하고, 2019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제1회 월드비치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려고 WTF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회다. 선수들은 해변에서 열리는 경기 특성에 맞춰 탱크톱, 민소매, 타이즈, 스포츠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 관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줬다. 예상을 뛰어넘는 총 26개국 3백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폐막식 없이 대회가 끝난 후 선수와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자유품새 17세 이상 스페인 남녀 혼성팀의 경기 모습

출처_ 연합뉴스, 2017. 05. 07.

■ 총회 및 창립 6주년 기념 포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30일(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에서 본회 총회 및 창립 6주년 기념 포럼이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이어, 포럼에서는 ‘문화로 읽는 삶의 가치, 배려와 행복’이라는 주제 하에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과 유자효 시인의 발표가 이어졌다. 조선 초상화와 시(詩)라는 문화를 통해 배려의 가치를 되새기고 행복한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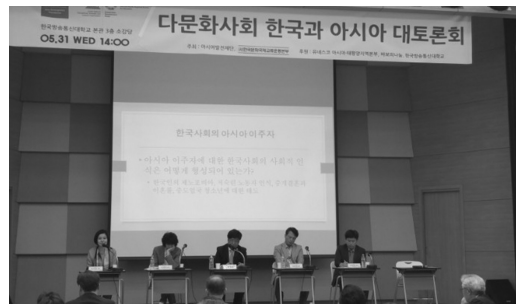
■ ‘세종마을’ 탐방

지난 5월 23일(화), 5월 문화탐방으로 서울 종로구 골목길 탐방 코스 중 하나인 ‘세종마을 코스’를 답사하였다.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윤동주 하숙집터, 박노수 미술관, 겸재 정선 집터, 이상 집터 등 종로구 서촌 일대 골목마다 서려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보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본 골목길 답사 프로그램은 종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면 무료로 신청하고 관람할 수 있으니,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답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지고 해산하였다.



■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15일(수),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다문화사회 한국과 아시아’ 대토론회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광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교육부 등 정책 실무자와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장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활발히 논의한 뜻 깊은 토론회가 되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7.03.30. 총회 및 창립 6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김옥랑 꼭두박돌관 관장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중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장호익 운영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 24. (토) - 30. (금)

장소 전북 무주 태권도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